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

10월 목주기도 성월

복음의 전체의 요약인 목주기도

+ 찬미 예수님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무수히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톨릭 신자를 가장 빨리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손가락이나 손목에 목주를 차고 있는 분들을 보면 금세 신자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목주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목주기도는 가톨릭 신자들 안에서 일상화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목주기도에 대해 바오로 6세 교황은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목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주님의 탄생 예고부터 예수의 탄생, 유년시절, 공생활, 수난, 죽음, 부활, 승천을 거쳐 성령의 강림, 성모승천에 이르기까지 인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주기도야말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심으로는 깊이 묵상하는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기도라고 볼됩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목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한 지식이나 교리 없이도 매일 같이 묵상한다면 일치와 관상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 목주기도를 관상기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같이 묵상하고 있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되돌아봅시다.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이 작은 목주 기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우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이들과 함께 바치는 목주기도〉

그리고 저와 함께 사는 청소년들과 함께 바치는 매일의 목주기도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참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길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차산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8월 12일(토)~13일(일) 아차산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아차산성당 주임 신부님과 신자분들,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원) 오락회



8월 18일(금)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원)에서 오락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마태 5,12)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함과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락회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살레시오회의 신부님과 수녀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9월 4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특별히 9월 축일을 맞이한 미리암 수녀의 축하식과 새 소임지로 떠나는 이중현 요셉 부위원장 신부의 송별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이중현 신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민하 울리오 부위원장 신부님 환영식



9월 5일(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으로 정민하 울리오 신부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직원들 모두 신부님을 환영하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정민하 신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8차 이사회



9월 8일(금) 명동 교구청에서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8차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장이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를 비롯한 이사, 감사님들과 임원 변경 및 2023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총의 빛 안에서

양인수 마르타_ 서울구치소 남사 대표봉사자

교정사목센터에서 교정 봉사 경험담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2000년 12월을 시작으로 어느새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교리반을 맡았을 때는 뜨거운 열정만 넘쳐서 제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세례를 받고 출소한 형제들을 교회로 이끌어줄 장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하는 형제 주소가 제가 아는 신부님이 계신 본당 구역이면 그 신부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 교정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출소한 형제와 본당을 연결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세례받은 형제들의 교적이 있는 본당 사무실에 가서 교적 상황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사무장님으로부터 교적만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근히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니 세례식이 다가오면 기쁨보다 출소 후 교적을 옮겨가게 도와주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신부님과 이런 고민에 관해 이야기 나누게 되었는데, ‘형제들이 출소한 뒤의 일은 하느님 몫이니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무겁게 누르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간헐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이에게 어디엔가 빛이 있어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문 위에 적혀있다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시구는 아주 유명하지요. 희망이 없는 절망적 상태는 가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절망의 어두운 터널에 있으면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곳이 어둠 속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터널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그곳이 어둠 속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도 한때 저 나름의 절망의 강을 건너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터널을 벗어나면 밝고 환한 빛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언젠가 교리 첫 시간부터 팔짱을 끼고 방관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던 어느 형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진지한 표정을 하고 이런저런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세례식을 얼마 앞두고 ‘처음 교리반에 나온 것은 솔직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곳 많은데 일부러 시간 내서 이곳으로 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울림이 전해져왔습니다.’라던 그 형제는 자신도 봉사자의 삶을 살겠노라며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소했습니다. 지금 그 형제는 그때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곳에서 세례받은 형제들이 세례받던 그 날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한 주님의 빛 안에서 오늘도 은총의 날입니다.



한 나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한나는 히브리어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카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프닌나가 있습니다. 프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프닌나는 한나를 약을 올리고 괴롭혔습니다(1사무엘 1,6-7). 그런데 한나는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1사무엘 1,7). 하느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소리내어 외치지 않습니다. ‘속으로 빌고’, ‘입술만 움직일 뿐’(1,13)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엘리 사제는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한나는 자신을 낮추어 ‘여종’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며 차분하게 대합니다. 프닌나에게 모욕을 당해도 슬퍼하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한나의 대응이 훌륭하고 고귀해 보입니다. 하느님께 청하고 엘리 사제의 축복의 말을 듣고는 한나는 마음이 풀리고 음식을 먹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합니다(1,18).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 또한 대단합니다.

마침내 아이를 얻습니다. 하느님께 청했기에 얻었다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하느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신앙은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늦게 얻은 아이여서 더더욱 소중할 텐데,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봉헌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설움을 받았는데 이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다시 아이가 없게 됩니다. 아이 없는 설움을 이겨내기 위해 청했던 아이가 아니었던가요. 사실 프닌나와 겨루기 위해서 아이를 원했다면, 기도는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프닌나보다 더 많은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말이지요. 레아와 겨루었던 라헬은 요셉을 낳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주셨으면!”(창세 30,24)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면, 한나는 달랐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아들 하나’만을 청했을 뿐이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이 자신을 눈여겨보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표징을 청했던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

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1사무 1,11)

주님께서 자신의 청을 들어주셨기에, 자기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1사무 1,28)는 한나는 주님이 모든 일의 근본이고, ‘반석’임을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발걸음은 지켜 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들은 깨어진다.”(1사무 2,9-10) 한나는 아들 하나를 청했을 뿐이나,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얻게 됩니다(1사무 2,21).

흉악범죄가 늘면서, 엄벌과 중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언급합니다. 시내에서는 경찰특공대가 총기를 들고 다니며, 경찰 장갑차도 등장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일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불안감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모욕과 오해 속에서도 조용히 기도를 드린 한나의 모범적인 행동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범죄에 따른 올바른 처벌은 중요하지만 그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차별과 빈부격차, 계층 간 소외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보고 줄이려는 노력이 더 범죄억제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더 범죄억제력이 있습니다. 한나는 주님께서 자신을 눈여겨보고 기억해주었음에 기뻐, 자신이 받은 유일한 아들을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눈으로 서로를 눈여겨보고, 살펴보며, 기억할 수 있다면, 특별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챙겨볼 수 있다면 범죄보다 ‘은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김일호 미카엘 /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창업 교육을 교정시설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 강사로는 기쁨과희망은행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운영위원인 내부 강사와 외부 강사로 구분하여 강의를 요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2회로 3일 교육, 4일 교육, 5일 교육으로 교정시설 상황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가 교정시설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2시간 또는 3시간 강의를 위해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의 교도소 강의를 위해 다른 일정을 뒤로하고 참여합니다. 출입부터 까다로운 출입 절차와 익숙하지 않은 강의실과 생소한 환경으로 교정시설이 처음인 강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교정시설이 처음인 강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 그려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이 아닌 친절하고 교도관들의 모습에 놀라고,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수업 태도에 더 놀라 합니다. 수용자들과 대면하며 무섭고 좋지 않은 인식에서 벗어나 위축되었던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전문가답게 강의를 이어가며 수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지식을 전하고자 열정과 열의를 다하며 강의를 마칩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목적과 기쁨과희망은행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수용자 교정교화 사업의 필요성과 출소자 자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후 교정 사목과 인연이 이어져 교정 사목과 기쁨과희망은행에 많은 관심을 두고 홍보와 후원회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강사인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들도 기쁨과희망은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대부분은 강의 이후 수용자와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출소를 앞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과 창업 교육은 중요한 사업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신부님들과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강사님들과 함께 의논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차별과 편견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정섭 시몬 신부님께,

보내주신 서신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덥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엿그제 처서가 지나서인지 24시간 돌아가던 선풍기의 바람의 단수도 조금 낮아졌고 새벽에 이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시간과 계절은 항상 자기가 있을 계절을 저희에게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라는 생각에 깜짝 놀라서 책을 다시 꺼내 보기도 하고 방에서 운동도 해보는데, 갇혀 있는 공간만큼의 짧은 계획이 되어버려서 또 제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봅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계획하고 또 실패하고 또 계획하고 가끔은 이런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제가 열정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스스로 토닥거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있는 방으로 신자 한 분이 전방을 왔습니다. 같이 한 달 정도 지내다 보니 서로의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고 다녔던 성지에 관하여 이야기도 하고 아침이면 마주 보고 앉아서 서로의 기도를 드리니 참으로 평안하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특별한 친구여서 서로의 상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다독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수용자들을 위해 기도, 연수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신부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나가서 열심히 살면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기도드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멀리서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어서 그런지, 희망을 말씀드리는 제가 지금 신기합니다.

같은 방 자매가 저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어서 제가 요새 많이 웃습니다.

저와 한 달 간격으로 사회로 복귀해 함께 피정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기도 친구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지금 한 마리 양이 되었지만, 소중하게 찾아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으면 합니다. 겨울이 오면 추울까 또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기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3. 08. 27. 김OO 올림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OO 자매님이 송정섭 시몬 신부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매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3년 11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광탄 나자렛 묘원에서 사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형수 형제들을 위한 위령미사 및 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뜻 깊은 자리에 후원회원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 ▶ 일시: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명동 교구청 앞마당)
- ▶ 장소: 광탄 나자렛 묘원
- ▶ 접수: 10월 1일(월)~18일(수)
- ▶ 회비: 1만원 (점심 제공)
- ▶ 준비물: 편한 복장과 신발, 따뜻한 물, 모자 외
- ▶ 전화접수: 02-921-5094 / 010-3732-5093

1. 전화접수(성함/연락처/주민번호) 2. 실명 입금 확인 3. 접수 확정

* 주민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10월 2일(월) 후원회원 월례 미사는 임시공휴일로 인해 없습니다.

- 9월 6일(수)~10월 11일(수) / 매주(수) 제24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 센터
- 10월 4일(수)~6일(금) 각 교정시설 대표봉사자 야유회
- 10월 13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야유회
- 10월 16일(월)~20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교육 / 서울구치소 남사
- 10월 18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0월 23일(월)~24일(화)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3기 인성교육
- 10월 23일(월)~27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교육 /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 10월 26일(목)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명동대성당 / 19:00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3/8/12~9/15)

2023년 8월~9월에는 김경순 요안나, 이명순, 정연진 스텔라, 최석임, 아차산성당 강원정 세노리나 외 99명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중현 요셉 신부, 정하경, 아차산성당 강소영 외 5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7면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